

작성일시	2025. 6. 02(월)	기재일시	2025. 6. 10(일)
소속	DBpiaje	작성자	DBpiaje소속-익명

<유대감 형성 부족의 근거와 정신붕괴 이론>

- 머리말 -

본 논문은 피실험자 ‘양재선’에게 현재 피실험자의 유대감 형성 부족의 이유를 납득시키고자 연구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유대감 형성 부족의 근거와 ‘정신붕괴 이론’이라는 혁신적인 이론을 제시함으로써 더욱이 전문성을 더했다.

[유대감 형성 부족의 근거]

피실험자 ‘양재선’은 ‘유대감 형성 행동’들에 전부 극심한 거부 반응을 보인다.

예를 들어 2025년 6월 2일 오전 9시 50분경에 일어난 사례를 근거로 들 수 있는데, ‘양재선’은 연구자의 유대감 형성 이론을 듣고선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며 바닥에 주저 앉았다.(이에 대한 심화 연구 결과는 밑에서 설명 하도록 하겠다), 또한 그의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핵심 인물인 ‘김현중’을 극도로 거부하는데 이는 그에게서 오는 안정감과 유대감이 ‘양재선’이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방대하여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은 ‘양재선’이 거부반응을 보이는 역효과가 나더라도 ‘김현중’이 그의 유대감을 형성시킨다는 점은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역효과를 감수하더라도 ‘양재선’이 ‘김현중’과의 유대감을 계속 형성해야 하는 이유가 존재하는데, 그의 유대감이 최저점까지 하강하면 ‘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신붕괴 이론]

2025년 6월 2일 오전 9시 50분경, 피실험자 ‘양재선’은 연구자의 ‘유대감 형성 이론’에 대한 설명을 듣고선 강한 거부반응(발작, 피성, 몸부림, 자해, 과호흡, 발X)을 보인다 바닥에 주저앉고, 이내 쓰러졌다. 바닥에 쓰러진 이후로도 그의 거부반응은 계속되었는데, 이는 여태까지의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미루어 볼때, 그가 이론을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여태껏 자신이 생각하고 있었던 사실과 다름에 일종의 ‘인지부조화’가 일어나 ‘정신착란, 현실도피, 유아퇴행’을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이번일은 여태껏 피실험자가 보였던 거부 반응중 가장 심각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번일로 알게 된 것인데 이미 그의 정신이 ‘정신붕괴Lv.8’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장기적으로 그가 거부반응을 보일시 ‘현중이’와의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유대감이 감소하여 ‘정신붕괴Lv.MAX’에 도달해 ‘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페이지에 정신붕괴 레벨을 세분화한 글을 첨부해두었다)

cf. 정신붕괴 Lv.

Lv.1-겉으로 보았을때 아무 이상이 없어보임

Lv.2-평소보다 피곤할뿐 아무 이상이 없어보임

Lv.3-평소보다 몸이 더 피곤하고 미세한 두통이 느껴짐

Lv.4-갑자기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느껴지고, 동시에 극심한 피곤함을 호소함

Lv.5-몸에서 악취가 나기 시작하며 두통, 불안감을 호소함

Lv.6-신체의 색깔이 변화하기 시작하며 극심한 악취가 남, 정신 착란증세가 시작됨

Lv.7-우울감을 느낌, 신체의 일부분이 점차 괴사하기 시작함, 옷을 더이상 세탁하거나 목욕을 해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함

Lv.8-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름에 따라 몸부림을 치게 됨, 말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며, 정신착란 증세와 함께 유아퇴행이 시작됨

Lv.9-갑자기 안정기에 들어감, 겉으로는 정상적으로 보임, 하지만 그에게서 시선을 돌리자마자 Lv.8과 똑같은 증세를 보임

Lv.MAX- ‘급사(예상치 못한 갑작스런 사망)’

